

### 주민센터에서도 ‘장애인’은 이방인

전국 2층 이상 건물 1690곳 중 승강기는 625곳만

점자 안내 책자 찾기 힘들어...수어 통역도 9.5% 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 편의 미제공에 대한 차별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차연)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 미제공에 대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차연은 모든 국민들이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는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해 장애인들이 차별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장차연에서 지난해 전국의 행정복지센터 3499개 중 1793곳을 조사한 결과, 2층이상 건물이 1690개임에도 승강기가 설치된 곳이 40% 안되는 625곳뿐이었다. 더불어 장차연은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지

않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 책자 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수어 통역은 조사된 행정복지센터 중 9.5% 만이 제공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수어 통역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차연은 “정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며 전국의 절반 이상의 행정복지센터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른 마땅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장차연 회원들은 인권위 사무실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차연은 “기본적인 행정과 복지에서 서조차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통해 강력한 시정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 보성군, 제28회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성공개최 준비 한창

대표자 회의 개최

제28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29일 보성군 북재출에서 시·군 및 경기단체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각 종목별 관계자 및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 임·직원과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 남백원 상임부회장, 보성군 최병만 부군수, 전라남도 유영후 스포츠산업과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28회 전남 장애인체전 개최인 보성군은 그동안의 준비상황과 향후 홍보와 선수단

숙박·음식, 교통 및 안전관리 대책 등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는 개최계획과 대회 참가요강, 참가신청 방법 등을 설명했으며, 종목별 협조사항과 시·군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보성군 최병만 부군수는 환영사에서 “200만 도민의 열정과 화합의 한마당인 제28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미래의 성장 동력인 스포츠 산업을 전남이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시·군 체육관계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 대회를 잘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성=인구일 기자

### ‘광주 사랑의 온도탑’ 101.6도 달성...54억 원 모금

아너소사이어터 7명 신규 가입...100호 돌파 성과도

광주시는 사랑의 온도탑이 101.6도를 기록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월31일까지 53억4900만원을 모금목표액으로 ‘희망 2020 나눔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종료 이틀을 앞둔 29일 현재 54억3400만

원을 모아 사랑의 온도 101.6도를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지난해는 기업의 대규모 기부가 줄어들면서 목표액 달성에 실패했다. 올해도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민과 기업, 기관단체가 동참하면서 100도를 훌쩍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삼성전자 3억8000여 만원, 광주은행과 광주은행 노동조합 2억8000여 만원, 기아자동차 2억여 원, 대우위니아그룹 2억여 원, ㈜플러버 1억5000여 만원 등 기업들이 사랑의 온도탑을 뜨겁게 달궜다. 캠페인 기간 광주지역 아너소사이어터(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에 7명이 신규 가입했으며, 100호를 돌파하는 성과도 있었다. 아너소사이어터 회원들의 모금액은



총 9억원으로 이번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평형 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의 사랑의 온도를 더욱 높여 광주시민이 나눔으로 행복해지고, 시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완주군, 장애인 가정 아동 폴안센 장학기금 선정

전북 완주군은 ‘2020 폴안센 장학기금’ 대상으로 완주군드림스타트 아동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완주군드림스타트 사업은 정신장애인 가정의 자녀에게 밝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교육과 정서지원 장학금과 더불어 생일선물비와 크리스마스

선물, 멘토링을 지원받을 수 있다. 폴안센 장학기금 대상자로 선정된 완주군드림스타트 아동은 1년간 총 13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된다. 문명기 교육아동복지과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심리적 지지와 관심이 부족한 아동들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